

상반기 ‘벤처투자 빙하기’ 지속… 업계, 옥석 가리기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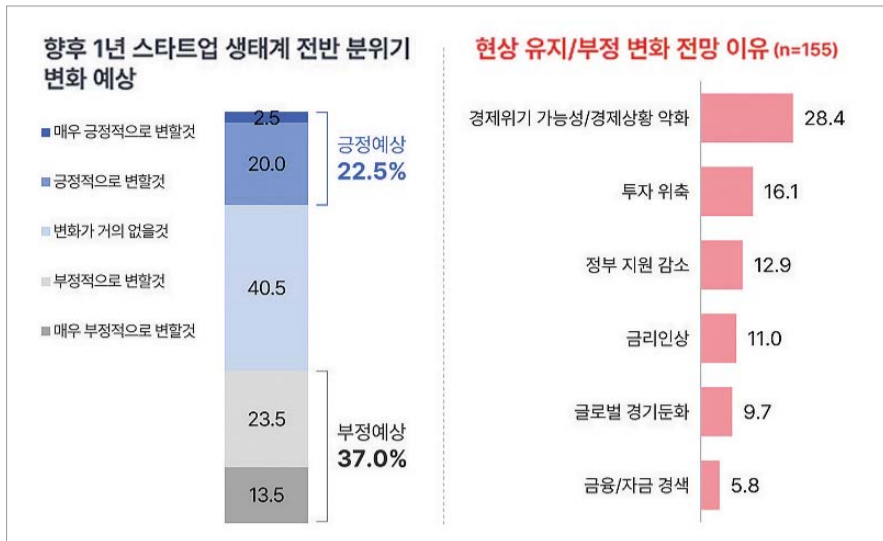
중기부, 작년 3분기 벤처투자 전년 대비 40% 감소 1조2525억
 “증시 반등엔 연내 해빙 가능성” 투자업계, 로봇·자동화 등 고비용 인력문제 해결분야 투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계는 지난해 악몽 같은 한 해였다. 상반기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하반기부터 변화가 감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1~3분기 벤처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5조3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1년 1~3분기(5조3153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3분기(7~9월) 벤처투자만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3분기 벤처투자는 2021년 3분기(2조913억원)와 비교해 40.1% 감소(8388억원)한 1조2525억원이었다.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심리 악화가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Trend Report 2020)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분석 결과도 다르지 않다.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얼어붙었다. 실제 2022년 스타트업 투자건수는 1765건, 투자금은 11조1404억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투자건수(1186건)는 1.5배 증가했지만 투자금액(11조7286억원)은 5882억원(5.02%)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을 제외하고 매달 1조원 이상 유지하며 총 7조3199억원 투자금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반토막이 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대규모 투자들이 몰렸다”며 “투자 후반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상반기 예정된 대규모 투자들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돈 줄이 바짝 마르자 줄도산 우려 속에서 생존 전략에 실패해 대규모 감원과 경영권 매각, 인수합병(M&A), 폐업 등을 피하지 못한 벤처·스타트업도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도 투자 빙하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업계는 최소 상반기까지 빙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캐피탈 최재웅 투자그룹장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고밸류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최소한 1년이 지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된다면 벤처·스타트업 투자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고 실적 위주로 기업가치의 재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해빙기가 올 것”이라며 “현재 기업 가치 재조정이 고밸류 스타트업부터 이뤄지는 만큼 연내에 해빙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벤처스 관계자는 “여러 지표들이 올해 더욱 심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작년보다 지속된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올해도 당분간 벤처 투자 빙하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투자업계는 벤처·스타트업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고비용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표에 통한 성장보다 뚜렷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블루포인트는 딥테크다. 딥테크는 첨단 과학과 공학에 기반을 둔 기술이다. 센서, 로봇, 자동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콘텐츠와 브랜드, IP(지식재산권)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독보적인 데이터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다. 더 이상 투자만을 현금 확보의 수단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 서비스 재점검·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시장의 큰 흐름을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협동조합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중기중앙회, 참여조합 모집
 월 최대 70%, 1인당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

24)’의 일환으로써 중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관련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은 오는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협회, 산업부 ‘기술평가기관’ 지정

이노비즈협회가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중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24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안정적인 기술거래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기술평가 전문인력과 평가모델, 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매년 공모해 신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협회

는 정관 및 내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4월 기술-인증평가단 발족을 기반으로 현재 전국단위의 전문평가인력을 24명까지 확충하는 등 조직과 인프라를 정비한 바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중심의 수요를 발굴하고, 특허·기술특례상장·연구개발(R&D)기회지원·투자기관 의사결정·금융기관 여신 확인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혁신형 기업들이 경영전략 수립이나 자금조달, 금융기관 의 투자결정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사진)은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중 최초로 기술평가기관에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를 통해 기술거래 및 자금조달 등 협회가 중소기업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신세계푸드, 친환경포장재 개발

종이 패키지 확대 등 업무협약 체결

한솔제지와 신세계푸드가 손잡고 친환경 포장재를 공동개발한다.

24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푸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종이 소재 패키지 적용 분야 확대 ▲연포장 및 용기류 등 친환경 패키지 개발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및 R&D 기술 교류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식품제조, 식자재유통, 급식, 외식, 베이커리 등 식품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가정 간편식 브랜드 ‘올반’, 외식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 대안육 ‘베리미트’ 등 새로운 식품 콘텐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온라인몰, 모바일 선물하기 등으로 판매중인 베이커리에 누보, 더 메나주리 등의 냉동 케이크 포장용 플라스틱 피지를 한솔제지의 종이 소재로 대체한 ‘친환경 케이크 패키지’를 선보여 제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케이크 패키지에 사용했던 친환경 종이 코팅지 ‘테라바스’를 비롯해 종이 연포장재 ‘프로테고’를 신세계푸드 제품에 적용하고 기존 플라스틱 소재가 주를 이루었던 식품용 패키지를 종이 소재로 대체해나갈 방침이다.

테라바스는 한솔제지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사용해 음식물 오염이 적고 종이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성이 강점이다. /김승호 기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고덕대교’ vs ‘구리대교’…한강 새 다리 명칭 ‘신경전’
 ▲“벗어나고 싶어요” 제주 항공기 모두 결항, 귀경객 발 동동 /사진 뉴스스

▲설 연휴 교통사고 56.7% 감소…음주 사고 사망자 ‘0명’
 ▲‘300원이 아니라고?’…서울 대중교통 400원 인상도 검토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2년 구형’ 조희연 선고 D-2…“유죄 나오면 진보교육 타격” /사진 뉴스스